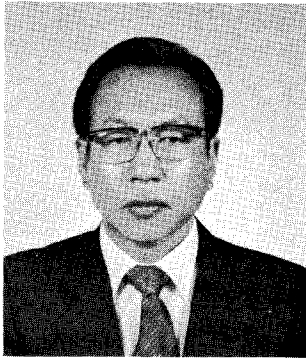


예방위주의 산불방지체제 구축



李 芝 馥
林政局長

1. 머리말

90년도는 20세기를 결산하는 마지막 연대로서 한시대를 마무리 짓고 웅비의 2000년대를 향하는 전진을 위한 도약의 한해이다.

우리는 지난날 국민경제의 고도성장과정에서 어려운 격동과 시련을 극복하면서 온 국민의 피땀어린 노력의 결집으로 국토녹화를 성취시켰고 녹화의 바탕위에 산지자원화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정열과 의지를 집주시켜왔다. 그러나 우리 임업의 현실은 20년생이하의 유령림이 73%나 되어 육림대상지가 380만ha나 되며, 수종갱신 대상지가 52만ha등 생산기반이 미약하며, 임도 및 유통시설의 미비등 경영구조가 취약하여 산림경영상 어려운 여건에 직면하고 있는 반면, 국민경제의 향상으로 목재 수요의 증가와 국민의 휴식공간등 공익적 수요의 증가추세를 감안할때 온갖 지혜와

정열을 쏟아 제2의 도약을 위한 산림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줌으로써 산림 경영의 활성화를 통해 푸른 자원의 보고(寶庫)로 자원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과제이다.

금년도 임정국의 주요시책은 ①산불방지 및 병해충방제사업의 철저로 산림자원을 보호육성 ②임산물유통구조의 개선 ③ 목재의 안정적공급을 위한 해외산림개발의 확대 ④산림투자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의 확대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2. 산불방지대책

국민경제의 향상과 도시화, 산업화로 인하여 산을 찾는 등산인구가 급증되고 임상이 양호해짐에 따라 산림내의 가연물질의 증가로 인하여 산불은 점차 대형화 추세에 있고 지난해만 하더라도 294건에 1,652ha의 막대한 산림자원의 손실을 보았다.

금년도는 대형산불의 일소의 해로 정하고 산불방지기간중 전행정력을 집주하여 대국민의 집중계도를 통하여 산림보호의식을 확산시켜 산불방지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조성하고, 초동진화체제의 확립으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기본 방침을 두고,

첫째, 예방위주의 산불방지체제의 구축
산불 취약시기인 봄철(3.1~5.31)과 가을철(11.15~12.15)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이기간동안 전국 시군구, 영림서

단위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여 비상근무체제를 확립, 조기신고, 조기진화를 위한 예방 및 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하고, 특히 예방조치로서 전산림중 2, 877개소 (115만ha)에 대한 입산통제와 등산로 337개소를 폐쇄조치하고 산불감시원 9,000여명을 취약지에 집중배치하여 계도 감시하는 한편 지정된 취사장의외에 서는 취사행위를 전면금지케 할것이며 더욱이 산에 들어갈때 「버너」 등 휴대를 금지케하는 범국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등산질서를 확립하므로써 산의 오염방지는 물론, 산불피해를 근원적으로 제거토록 노력할 것이다.

둘째, 진화대의 재정비와 실용적 장비의 확충

전국에 조직된 산불진화대를 민방위대및 의용소방대를 주축으로 조직하되 초동진화를 위한 이동단위에 35,630대, 읍면단위에 1,189대, 공무원을 주축으로한 특별진화대 1,123대를 조직적으로 재정비보강하여 진화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진화장비는 년차별계획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확보추진하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고성능 동력펌프 71대, 휴대용무전기 430대, 방화복 980착, 감시초소 60동을 확보하며 오지 주요산림내에는 급수원 물탱크를 시설토록하고 헬기 2대를 추가도입하여 총 13대를 취약지에 집중기동배치하여 초동진화케 하므로써 산불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한다.

3.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병해충 발생추세를 보면 80년도에 519천ha 발생되었으며 그동안 적극적방제로 회복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전국 산림의 약 6.5%인 421천ha가 피해를 입고 있다.

이중 피해가 가장 심한것은 솔잎혹파리 피해로서 286천ha, 솔껍질깍지벌레 10천ha이다. 이들 해충은 생태적으로 약제살포에 의한 구제가 불가하며 방제시기가 농번기인 6, 7월로 한정되어 대면적방제가 어렵고, 방제비용이 일반해충보다 3~4 배나 고가로 과다하게 소요될뿐만 아니라 인력동원등의 애로로 획기적인 방제효과를거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년도에는 방제목표를 전발생면적의 52.5%인 221천ha로 정하고 총132억원을투입하여 솔잎혹파리 53,000ha, 솔껍질깍지벌레 8,000ha 방제에 총력을 집중하고 기타 소나무재선충등 신규돌발해충은 초동집중방제로 현위치에서 박멸할 계획으로 추진하겠다.

4. 임산물 유통구조의 개선

산림에서 다양한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으나 임산물에 대한 유통체계가 미확립되어 다단계의 유통구조와 유통정보의 미흡으로 인하여 유통비용의 증가로 생산자 및 소비자부담이 과중되고 저장 및 가공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홍수출하로 임산물가격의 불안이 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임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유지를 위한 임산물유통구조의 개선은 시급한 과제이다.

임산물유통구조는 전국의 조직망을 갖고 있는 산림조합계통을 통하여 임산물의 유통정보 및 알선센타로서 수집, 판매, 알선과 가격정보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2,000년까지 유통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산물직매장 17개소, 목재집하장 33개소, 임산물유통센타 50개소, 임산물가공공장 10개소를 년차적으로 확대설치운영

하므로써 산림조합이 명실공히 임산물유통 전달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개선시켜 나가고자 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통시설로는 임산물 직매장 4개소(서울, 대전, 전북, 경남)와 목재집하장 4개소(가평, 문경, 평창, 제원)가 운영되고 있으나 보다더 치밀한 계획하에 활성화를 기하므로써 유통질서를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금년도에는 총 920백만원을 투입하여 임산물직매장, 목재집하장, 임산물유통센터, 가공공장을 각각 1개소씩 신설할 계획이다.

5. 해외산림개발의 확대

금년도 목재수요량은 9,638천 m^3 로서 그 중 국내재공급은 16%인 1,508천 m^3 로서 부족분 84%는 외재로 공급토록 계획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목재자원의 실정으로 보아 외래의존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장기목재수요추세를 보나, 세계목재자원사정을 검토할때 외래의 도입사정은 점차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어 이의 대응책이 절실하다.

우리나라의 2,030년까지 장기목재수요는 23,500천 m^3 로 급증될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세계목재자원국은 환경 보존의식의 확산으로 별채량을 감소시키고 더욱이 가공수출정책의 강화로 원목수출규제가 확대되고 있어 외재도입여건은 더욱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목재의 장기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동남아위주의 개발에서 대양주, 중남미, 소련등 원목수출 미규제지역으로 빠른 시일내에 진출을 다변화 하여야 하겠으며 이를 위해 금년중에 개발업체와 합동으로

현지 투자환경조사를 실시하여 개발을 적극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자원보유국의 원목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원목개발에서 제제품, 단판, 칩, 가구 부품등 개발진출업종도 전환하여 반제품도입을 확대하면서 장기원목확보를 위해 해외조림투자도 병행추진할 것이다.

한편 남양제의 자원확보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을 감안할때 우리의 남양재중심의 목재소비 폐턴을 송백류, 북양재로 점진적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아울러 풍부한 북양재의 개발을 위한 재질 및 용도개발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6. 산림개발자금의 융자지원

금년도 산림사업에 지원될 융자금액은 총 30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융자금별 확보내역은 산림개발기금에서 25억원, 자투자금 45억원, 농어촌발전기금 6,454 백만원,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14,088 백만원등 총 27,542백만원이 산림개발자금으로 융자지원되겠으며 이밖에 농협자금에서 25억원이 양묘자금에 지원될 계획이다.

특히 금년도에는 산림개발기금에 한해서는 장기수조림, 육림과 임도시설은 물론 모든 조림과 육림자료, 그리고 임업후계자육성자료, 간벌, 임업기계화를 위한 장비구입자금, 산주의 입목선매방지를 위한 입목선매방지자금등 융자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이자율을 5.5%에서 3%로 대폭인하하였다. 더욱이 이자율 3%로 인하된 융자대상에 대하여는 이미 종전에 5.5%로 융자받은것에 대해 앞으로 지불할 이자까지도 인하조치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산주들의 산림투자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켰다고 본다.